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9>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라

불교는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피어나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맑은 삶, 고요한 삶, 지혜로운 삶을 불교에서는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한껏 피워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진정 맑고도 고요한가?"라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맑고 아름다운 계율에서 계율의 실천은 행복한 삶의 주춧돌이자 그곳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혹은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참선하는 수행자도 역시 '살생' '음행' '투도' '망어' 등 부처님이 일러주신 계율을 잘 지켜서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라고 한다. <선가귀감> 39장에서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놀리는 수행자를 경계한다.

無德之人 不依佛戒 不護三業 放逸懈怠 輕慢他人 較量是非 而為根本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쓴다. 계율에 이력저력 지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덕'이 없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가? 도(道) 닦는다고 말하면서 출가의 본뜻을 잊고 사되고 악한 길만 따라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허망하게 불조(佛祖)의 기원(機緣)과 고인(古人)의 공안(公案)만을 올바른 법이라 하여 집착하고, 그 법을 전수하며 최고의 보배로 삼으면서 계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인과를 무시하여 너와 나의 다름만 늘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만 마음에 가득한

계율 실천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첫 걸음

삼업 잘 다스려 사된 견해에 떨어지지 말아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들은 마구니나 외도의 경계에 떨어져 영원히 그들의 권속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열반경>에서는 "계율을 깨뜨린 비구는 몸과 위와 덕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계율이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에 해당하는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행복한 지점이다. 이 계율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첫째 몸을 다스리는 것이니,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不殺生],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지 말아야 하며 [不偷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不婬行]. 둘째 입을 다스리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 대중의

화합을 깨지 말아야 하고 [不兩舌], 험하고 거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不惡口], 명성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不妄語], '없는 말'을 화려하게 꾸며 남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不綺語]. 셋째 뜻을 다스리는 것이니, 함부로 욕심내어 분수에 넘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不貪心], 뜻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구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不瞋心]. 이렇게 욕심내고 화를 내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야 한다 [不癡心].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이 열 가지 좋은 업을 합쳐 십선(十善)이라 하고, 그 반대는 십악(十惡)이라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一破心戒 百過俱生
부처님 뜻에 맞추어서 다듬어진 마음이 한번 깨지면 온갖 허물이 함께 일어난다.

심계(心戒)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잘 다듬어진 마음이고 백과(百過)는 온갖 허물을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다듬어진 마음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온갖 허물이 사라져 '십선'을 실천하여 바른 법을 일으키는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온갖 허물이 일어나 '십악'을 행하여 사된 소견을 갖게 되는 마구니가 된다. 부처님 법이 약해지는 말법시대에는 제멋대로 사는 마구니들이 많이 늘어난다. 서산 스님은 다시 말한다.

如此魔徒 未法熾盛 魔亂正法 學者詳之
이와 같은 마구니 무리들은 말법시대에 불붙듯이 일어나 정법을 어지럽힐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법(正法)이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올바른 법을 말한다. 말법시대는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아 외도들의 사된 법이 치성할 때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정법시대라도 사된 견해에 떨어져 있다면 말법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세태가 험악한 말법시대라도 사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정법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참선하는 수행자라도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배운 법만을 옳은 것이라고 내세워 수행자 위의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처신한다면, 사된 소견에 떨어졌다는 것이니 말법시대 사람이다.

반대로 부처님 계율에 의지하여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참선하는 수행자라면 정법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참선하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몸과 입과 뜻을 잘 다스려야 한다. 번잡한 일을 없애기 위하여 시끄러운 곳을 멀리 떠나 늘 고요한 곳에 머물러 공부해야 한다. 언제나 부족한 것으로서 만족하여 욕심이 없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이 하기 어려운 고행이라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죄에도 두려움을 내고 부끄러워하며 그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 계율을 존중하여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마음으로써, 부처님 계율을 비방하는 증생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율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옹명 정진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참선만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열린 마음=부처님 마음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수좌(首座)

절에 가면, 스님들 앞에 붙는 호칭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장, 주지, 원주, 노전, 부전 등... 불교에 문외한인 사람에게서는 사찰에 찾아가 스님을 뵈 볼 경우,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지?" 하며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요. 호칭은 그 사람의 역할과 소임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원주라면, 절 집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실무책임자입니다.

문제 하나를 내볼까요? '수좌(首座)가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만 새겨 봐도 얼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수좌는 선원(선방)에서 최고 어른스님입니다. 수행의 모범이 되는 스님으로, 총림(선원, 율원, 강원을 모두 갖춘 큰 사찰)에서는 방장스님이 없을 경우, 수좌가 모든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높은 직책입니다. 때문에 수좌는 수행자들에게는 정신적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뜻의 수좌가 최근에는 선방에서 참선을 주로 하는 스님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지요.

지역의 어느 대학을 보거나, 직책을 이렇게 해놨더군요. 총장, 명예총장, 법무 담당 부총장으로 말입니다. 여기 빚대 설명하면, 방장은 종합대학교 총장, 조실은 명예총장, 수좌는 선원 담당 부총장 정도 볼까요? 방장은 총림에서, 조실은 선원이나 큰 절에서, 수좌는 선원에서 최고 어른스님이나지요. 그런 맥락에서 수좌를 선원 담당 부총장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장과 조실스님을 보좌하며, 총림에서 제1 순위인 선원에서 대중을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0강 혜능과 지눌의 맞장구

혜능의 구걸 가운데, 얽힌 힘줄 몇 군데를 짚어보자. <금강경>의 무소득(無所得)을 두고서 그는 이렇게 부연했던 것을 기억한다.

[혜능]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번뇌 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적이상조(寂而常照)가 곧 자성불(自性佛)이라는 일지 하나이다." 但悟自性本來清淨, 本無塵勞, 寂而常照, 即自成佛.

(1)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 불교 특히, 선문(禪門)에서 늘 듣는 말이 '자성(自性)은 청정(淸淨)하다'는 것일 게다. 여기 자성은 대체 무엇일까. 오랜 무문토공과 화두 일념을 통해서야 여기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초기불교는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자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그게 절대 청정하다고까지 말하는가.

알겠어 말하면,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둘은 서로 다른 자성(自性)을 말하고 있지만, 두 주장은 상호 보완적이다. 초기불교의 무아 논의를 여기 생략하기로 한다. 한 마디만 짚자면, 여기 '없다'는 자성(自性)은 세계를 향한 자기의식의 중심을 가리킨다.

지금 혜능이 말하는 자성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아참, 여기 자성(自性)은 불성(佛性)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미리 말해 두어야겠다. 오늘 해설은 내 무나 사설보다 고려 지눌 스님의 깊은 속내를 듣기로 한다. 출전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수심결(修心訣)>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책 제목 그대로, '마음 닦는 핵심 비결'과 연관되어 있으니, 잘 새겨들어야 한다.

(2) 그렇다면 너는 곧 부처이다.

지눌은 자성이 대체 무엇이고 그게 어디 있는냐는 학인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 "네 몸에 있는데, 다만 네가 못 볼 뿐이다. 너는 하루 내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알고 춥고 뜨거운 것을 알고, 기뻐하기도 하고 성질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것'이다." 지눌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너는 곧 부처이다!"

그럼, 이 자성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가. 지눌은 다시 친절을 베푼다. - "네 마음이 이미 그렇다니까, 못 알아 듣고선 무슨 수를 써야 하느냐고 묻느냐. 무슨 수를 쓰자고 들면 지식이 개입되고, 그럼 일은 어그러져 버린다. 비유컨대, 어

떤 사람이 제 눈을 찾아 헤메는 것과 같으니, 사물이 보이는 것으로, '내 눈이 있구나' 하면 되지, 다시 그걸 찾아가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찾을 생각도 말고, 안 보이네 어쩌네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신령스런 작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시 찾을 것인가. 찾으려고 들면 못 찾을 것이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바로 견성(見性)한 것이다."

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갖추어, 지상과 천상의 공양을 받으시니, 하루 만냥의 황금을 출어 쓸 것이다. 네가 이리 된다면 진정 대장부이니 일생 해야 할 일을 마쳤다!" 혜능이 '적이상조'라고 하는 것을 지눌은 '공적영지'라고 했다. 적(寂)은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곳, 즉 번뇌와 염려 등의 진로(塵勞)가 탈락된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오랜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우리 마음은 본래의 신령스런 작용을 회복한다.

배고프고 성질내니... 너는 부처다

(3)적이상조(寂而常照), 비어있는 곳의 신령한 지식(空寂靈知)

학인 하나가 "당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불내소리를 했다. 지눌의 고구정령이 이어진다.

- "도(道)는 알고 모르고에 달려 있지 않다. 너는 제발, '나는 지금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부터 접고, 내 말을 새겨들라. 네게 보이는 사물은 다들 이미지에 불과하고 너의 수많은 생각 또한 본시 신기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박이 비어있는(空寂) 곳에, 신령스런 지식(靈知)의 작용이 환하게 밝다! 알거라, 이것이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고, 아울러 삼세(三世)의 제불(諸佛)과, 역대 조사(祖師)와 천하 선지식들이 그들 안에서(密密) 전해온 진리의 인종(印)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더니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처의 지위(佛地)에 오른다. '걸음걸음이 삼계(三界)를 건너고, 그리운 집으로 들어가니 모든 의심이 끊어졌네.' 그때 너는 인천(天人)의 스승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자



그 영지(靈知)를 혜능은 '비춤(照)'이라고 불렀다. 흠사 구름 없는 태양이 세상을 구석구석 비추듯, 편향과 외곡, 자기 중심이 없는 마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출 수 있다. 그때 즉 '자성불(自性佛)', 저절로 부처를 완성한다.

어제 온전을 하다가 버스에 풍뎠을 치 건너 있고, 그리운 집으로 들어가니 모든 의심이 끊어졌네.' 그때 너는 인천(天人)의 스승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자

했다. 마음이 문득 편익의 이익에 점유되고 나면, 사물을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보기를 놓치고 만다. 사방이 갑자기 캄캄 어둠에 싸이고 욕망으로 난 한줄기만 길이 열리는 것을, 경계, 또 경계해야 한다. 나는 버스의 승객들에게 정중히 거둬 사과했다. 나 자신에게도...

(4)저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벼어'있되 신령스런 마음(靈寂)

일이나, 몸이 한다고? 시체는 냄새도 못 맡고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몸이 그것을 한다고는 못하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필시 너의 본심(本心)이다! 그 맑은 신령이 있어 감이수통(感而遂通), 사물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줄 안다. 그래서 방거사가 왓. '신통하구나. 묘한 작용이여, 내가 물을 길고 싶을 저 나르다니...' 라고 했던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들 어갈 것인가. 여러 문이 있지만 하나만 가르쳐 주마. '저기 나무 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예!', '그 들는 것의 바탕으로 들어서면, 거기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 나.' '없습니다. 수많은 소리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기특하구나. 여기가 소리를 통해 진리로 들어서는 곳(觀音入理之門이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물어보자. 거기 일체의 소리들, 일체의 분별도 없다고 했잖아, 그럼 그런 맹망 아무것도(虛空) 없다는 것이겠네.' '그건 그렇지만 않습니다. 환하게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그 맹망 아니고 환한 무언은 어떤 몸을 하고 있는 고?' '형태가 없어, 말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울지, 거기가 여러 부처와 조사들의 목숨이 달린 곳이다. 다시 의심하지 마라.' 지눌은 덧붙인다.

- "그것은 크기도 따질 수 없고, 끝도 없으며, 안팎이나, 오고감, 나고 죽음도 말할 수 없다. 깨끗하고 더럽다도 있을 수 없다. 시간이 없으므로, 변화도 없고, 그러므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의 전환도 우스운 말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도 없고, 형태도 이름도 없기에, 그래서 '본래 공적(本來空寂)'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무정(無情)한 벽돌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거기 신비로운 이해와 작용(性自神解)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